



담배값 인상! 결국 우리가 가야할 길

글 □ 대한결핵협회 홍보과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은?

우리가 평상시에 곧잘 잊고 지내는 것이 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헌법에도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흡연으로 인해 건강을 잃고 후회해 보았자 때는 이미 늦다.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현재 세계에서 성인 남성 흡연율과 청소년 흡연율이 가장 높은 나라군에 속해 있다.

세계 모든 나라들 특히 선진국들은 정부가 앞장서 흡연문제를 긴급한 공중 보건문제로 인식하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 중에서 담배값 인상 방안은 가장 효과적이고 검증된 금연정책이다. 흡연자 중 절반 이상이 담배값이 5,000원을 넘어설 경우 금연할 뜻이 있다고 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면 성인남성 흡연율이 61.8%에서 1.7~3.4% 포인트 하락하고 여

기에 500원을 추가 인상하면 3~6% 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담배값이 20%이상 인상돼야 금연확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며 담배가격 인상은 특히 저소득층과 청소년 흡연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중 담배값을 500원 올린 뒤 매년 500원씩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잠깐 해외로 눈을 돌려보자. 영국은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담배값에서 차지하는 세금비중이 79.1%로 우리나라(71.0%), 일본(60.0%), 미국(26.9%) 등을 제치고 가장 높은데, 이로 인해 흡연률은 지난 1972년 46%에서 1994년 이후 27~28%로 크게 감소했다.

프랑스를 보자. 흡연인구가 최근 5년간 약 200만명 감소한 데에는 급격한 담배값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정부가 지속적으로 담배가격을 갑당 5유로(미화 6달러) 가량 인상함에

따라 14%가 금연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는 예방을 하고

몇몇 담배관련 단체들은 주장한다. 담배값 인상은 물가를 0.78% 인상시켜 경제를 어렵게 하고 대규모의 밀수 초래 등 사회적 문제와 담배소비자의 기본권 침해 등을 내세우고 있다.

담배가격 인상문제 역시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과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고 진행되고 대책 또한 수립돼야 할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는 예방해 나가면 된다.

담배로 인해 수많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보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중요한가? 세계은행이나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것처럼 담배를 소비자 물가지수 계산에서 제외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담배는 절대 생필품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담배밀수와 위조담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지대책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지만, 사실 담배유통은 담배가격과는 관계가 없고 그 나라의 부패정도, 불법유통을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에 따라 결정됨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담배밀수가 가장 성행하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와 동남아 빈곤국가라는 사실을 상기하자.

결과적으로 담배값 인상정책은 여러 정책들 중에서 매우 효과적인 금연정책임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담배값 인상을 통한 금연은 이제 상식이 되어야

여러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은 전한다. “KT&G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당주이고 지속되고 있는 고가 브랜드의 판매호조에 따른 판매단가 상승으로 올해에도 기대 이상의 수익성 개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예상되는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며 가격인상을 통한 흡연율 억제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담배값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나 최종 담배가격 인상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과거 완만한 가격인상의 경우 담배가격 인상이 순매출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실적개선의 계기가 된다”. 이는 담배회사에 계속 투자를 해도 좋다는 말인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담배값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보다 강한 금연정책을 펼쳐야 힘을 절감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KT&G가 담배가 아닌 사업다각화를 통해 홍삼, 부동산, 바이오 산업 등으로 성장하는 글로벌기업이 되는 데야 누가 뭐라 하겠는가? ㄸ